

## 셋째 주(Week 3)

이사야 6:1-8 “죄의 자백(Confession)과 경청(Listen)”

### 여는 기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에 함께 들어감에 앞서, 먼저 용기와 겸손한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께서 저희의 마음에 빛을 비추실 때, 그 속에서 저희 삶과 공동체 가운데 있는 죄를 직면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죄가 당신과의 관계는 물론,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깨뜨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 당신께서 저희를 친히 인도해 주셔서, 저희 안에 연약함과 죄로 인해 입은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저희의 삶과 관계 가운데 당신의 뜻을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읽으세요. 서로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 소리내어 읽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문의 내용 중 특별히 눈에 들어오거나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이 있습니까? 혹은 잘 이해되지 않아 관심을 끌거나 궁금증을 자극하는 본문의 내용이 있나요?

웃시야 왕이 죽었던 해였습니다. 그 때는 여러모로 불안정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불행한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그 어두운 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렵, 갑작스럽게 한 환상이 이사야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웃시야 왕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 세계의 삶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한없이 크고 중요하게 여겨졌던 모든 일상의 문제들은 너무나도 보잘 것 없이 느껴졌고, 그 순간으로부터 이사야는 모든 자신의 생각들과 우선순위가 재정비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순간, 이사야는 자신이 가치없고 부정확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온 빛에 비쳐 자신의 주변과 사회를 바라볼때, 이사야는 자신을 포함한 전 세계가 부정하고 엉망진창이며, 천하고 죄가 가득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한 현실의 모습을 두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생명을 걸어가는 대신, 그의 죄를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볼로 이사야를 정결케 하신후 그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망했다는 상태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전달해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듣지 않을 이스라엘백성의 모습을 이미 예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좌와 권세라는 저울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저울질하길 이미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작고 보잘 것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과의 논리로 이해되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대면할 때, 사람들은 종종 경외심으로 가득찬 침묵과 겸손으로 그 분 앞에 반응하곤 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예배의식들이 고백(Confession)과 확신(Assurance)의 시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은 단순히 죄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의도로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단순히 우리가 늘 하던 예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런 시간들은 단순히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들이 드리는 고유한 예배의 방식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생략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 죄를 고백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을 조금이나마 맛 볼수 있는 한 줄기 빛을 제공하고, 그 빛을 통해 우리의 삶을 재조명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되거나 부조화스러운 것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찾아와, “제 바지위에 쏟은 커피가 보이세요?”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주기 위해,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할 것 입니다: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네요. 빛이 있는 이 쪽으로 잠시 나와보세요. 그러면 선명히 잘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빛 안에서 그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커피자국이 들어납니다. 죄를 고백하는 이유 역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우리의 발을 내딛는 순간, 그 전에는 누구에게도 감지되지 않았던 것들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6 장의 배경은 웃시야왕이 죽던 해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보좌 위에 앉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한 순간부터는, 더 이상 웃시야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빛 속에서 새로운 것들이 들어날 때, 새로운 필요가 발견되고 우리 인생을 향한 새로운 우선순위들이 정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변화의 한 부분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흔히 말하는 대로,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그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원하는 (혹은 만들어낸) 하나님(the God)과의 우정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가 아닌,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자리입니다.

서로 안에서 죄를 고백(Confession)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항상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합당할 만큼 선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한 방법입니다. 이 시간은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갈망케 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우리가 불만족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도록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쉬운 예로, 광고산업 전체만 바라봐도, 우리의 삶에 부족함과 필요를 느끼게 만드는 능력에 자신들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광고들은 우리 인생을 개선해야 할 필요들이 무엇인지 한없이 다그치고 있지만, 이미 그런 메시지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최근에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화받는 요구가 포함된 예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새피조물로서 살아가는 한, 이사야가 말했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와 같은 고백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사야가 경험했던 이런 종류의 감정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감정은 또한 예배 가운데, 혹은 예배후에도 계속해서 맴도는 지배적인 감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감정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완전히 배제된다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대면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음과 같은 의문을 던져 봐야할 것 입니다. 그 분은 이사야가 보고 경험했던 지극히 높은 보좌에 계신 참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창조하고 우리의 삶의 지평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보잘것 없고 거짓된 하나님입니까?

토론해 볼 주제:

- 죄를 자백함에 대한 당신의 거리낌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 당신의 삶 가운데 죄의 자백을 나눌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참된 신뢰를 나눌만한 그런 사람 말입니다.
- “내가 잘못했습니다” 혹은 “내가 망쳤습니다” 와 같이 자신의 실수나 죄를 겸손히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백은 당신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진정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 어떻게 하면 죄의 자백이 우리 삶 가운데 한 부분이 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훈련은 비록 쉽지 않을 것이지만, 꼭 필요한 것입니다.
- 이사야는 자신의 죄된 존재임을 인정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함으로, 그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경험이 앞선 다섯장의 이사야서에서 묘사되었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달는 기도:

자비로우신 주님,  
당신을 향해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말, 행동 속에서,  
저희가 행해왔던 것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했으나 행하지 않았던 것들 가운데 있던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를 온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을 우리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못 했습니다.  
당신의 자비 안에서 저희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용서해주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더욱 빛어지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가야할 길을 인도해 주시므로,  
당신의 뜻 가운데서 기뻐하고,  
당신의 길 가운데 걸으며,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에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